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의 복장 기록과 도상 분석

劉根子*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기록과 도상 |
| II.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기록의 현황 | VI. 맺음말 |
| III.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기록의 분석 | |

요약

[주요단어] 상원사, 문수보살상, 선재동자상, 남순동자상, 五臺五如來, 환적 의천

본 논문은 1661년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幻寂 義天이 작성한 眞如院 三重創에 관한 기록(1660년)과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1661년) 등 총 9점 가운데 중요한 7점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상원사 文殊菩薩像, 五臺五如來像(小佛像), 善財童子像, 南巡童子像, 文殊菩薩 36變身圖가 모두 1661년에 조성된 사실과 幻寂 義天의 활동을 규명하였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기록의 五臺五如來는 조성 당시 문수보살좌상 주변에 배치된 것으로, 이들 5존상 중 현재는 2존상이 상원사 문수전 불감과 원주 대성암에 각각 1존씩 남아있다. 이 2존의 小佛像도 1750년에 다시 제작된 사실은 五臺五如來로 조성된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상원사에 善財童子 및 南巡童子像이 문수보살상의 협시로 함께 봉안되어 있는 것은 이들 像이 1661년에 조성되었다는 복장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불교조각 가운데 문수보살상의 좌우 협시로 모셔져 있으며 지금까지 존명이 확인된 유일한 예이다.

幻寂 義天은 여러 곳에 환적암을 건립하였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증명으로 참여하였으며, 선망 부모의 영가천도를 위해 상원사 문수보살상과 권속을 조성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1661년 ‘목조문수보살좌상’과 동시에 조성된 ‘五臺五如來像’, ‘善財童子 및 南巡童子像’, ‘文殊菩薩 36變身圖’ 등이 오대산 문수신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규명하였고, 이들은 조선시대 오대산 문수도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동국대학교

I. 머리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에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조성된 7존의 불교조각이 봉안되어 있다. 조선 전기 작으로는 목조동자문수좌상(1466년), 목조제석천상(1466년 추정),¹⁾ 목조善財童子입상(1466년 추정)²⁾이 있고, 조선 후기 작으로는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³⁾ 목조善財童子입상과 목조南巡童子입상(1661년), 목조아미타여래좌상(1750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작인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기록 9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1661년에 함께 조성된 五臺五如來, 善財童子和 南巡童子, 그리고 문수보살의 36가지 변화상을 그린 36變身圖를 소개하고자 한다.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조사는 2008년 8월에 이루어져 다량의 복장물이 수습되었다. 복장 유물로 幻寂 義天(1603~1690)이 필사한 眞如院三重創發願文(1660년)과 文殊菩薩造成發願文(1661년)을 비롯한 9점의 발원문을 비롯해 전적, 다라니, 후령통이 수습되었다.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을 제작한 조각승 懷鑒의 조각 활동과 문수보살상 도상을 조선시대 불화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 논고는 이미 발표된 바 있어,⁴⁾ 본고에서는 복장 기록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幻寂 義天이 선망 부모의 영가천도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1660년부터 1661년까지 佛事를 진행하면서 여러 점의 조성과 관련된 복장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기록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五臺五如來, 善財童子和 南巡童子, 그리고 문수보살의 36가지 변화상을 그린 36變身圖를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1661년에 함께 제작했다는 것이다. 善財童子·南巡童子和 함께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다.⁵⁾ 그러나 五臺五如來와 36變身圖가 함께 제작된 사실은 그동안 주목한 바가 없다.

1661년에 文殊菩薩像·善財童子像·南巡童子像이 함께 조성된 것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와 善財童子, 또는 조선후기 용왕과 함께 관음보살의 협시로 등장한 善財童子和는 다른 양상이다. 『화엄경』 「입법계품」 속 善財童子的 순례는 文殊師利童子 즉 문수보살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문수보살로부터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8번째로 만난 선지식은 관음보살이다.⁶⁾ 고려와 조선시대 불교미술 속 善財童子[南巡童子]는 주로 관음보살과 결합되었고, 문수보살과 함께 조합된 예는 현재로서는 상원사의 경우가 유일하다.

幻寂 義天이 작성한 眞如院三重創發願文과 文殊菩薩造成發願文에는 『삼국유사』와 『五臺山事蹟』에 등장하는 진여원의 존재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 조선 후기 진여원과 상원사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중창한 이후에는 오대산을 유람한 유학자 송광연(1676년), 정시한(1687년), 김창흡(1718년), 강재항(1727년)의 遊山記에는 眞如

1)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 pp.267~313;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30, 한국선리연구원, 2021, pp.251~304.

2) 심주완,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善財童子입상 연구」,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12, pp.235~265.

3) 손영문,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제작자와 도상적 연원」,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12, pp.343~387.

4) 손영문, 위의 논문, pp.343~387.

5) 심주완, 앞의 논문, pp.257~258. 선행 연구에서는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선재동자상과 남순동자상이 조성된 사실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6) 전해주, 「善財童자의 巡禮」, 『한국불교학』57, 한국불교학회, 2010, pp.85~144.

院 또는 眞如閣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⁷⁾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을 주도한 幻寂 義天은 창건 당시부터 내려오던 오대산 신앙을 재현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유물 가운데 발원문과 필사한 다라니 등은 幻寂 義天이 오대산에서 수행할 당시 그의 수행관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기록을 분석하고, 幻寂 義天의 수행관이 복장 전적 및 다라니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또하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에 등장하는 五臺五如來, 善財童子와 南巡童子, 문수보살 36變身圖의 존재이다. 五臺五如來像으로 추정되는 존상은 현재 1존만이 남아 있고, 善財童子像과 南巡童子像은 모두 현존하고 있으며, 문수보살 36變身圖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불교 도상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기록 현황



그림1. 상원사 문수전 목조문수보살좌상, 목조선재·남순동자상, 1661년

상원사 문수전에는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善財童子像과 南巡童子像이 봉안되어 있다(그림1).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에서는 眞如院三重創發願文, 문수보살상 조성발원문, 幻寂 義天 평생발원문 등 여러 점의 복장 기록이 수습되었다. 또한 복장 전적으로는 『백지묵서광백론석론』권제5, 『예념미타도량참법』권7-10(1474년), 『육경합부』(1488년),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607년), 『묘법연화경』권4-7(1539년), 『묘법연화경』권3-4, 6-7(1561년), 『묘법연화경』권1(1646년), 『묘법연화경』권1-7(1561년 간행, 1661년 후쇄 추정), 『묘법연화경』권제5-6(1661년 추정) 등이 있다.⁸⁾ 이 외에 幻寂 義天이 필사하거나 판각해서 인경한 다양한 진언류가 있다.⁹⁾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복장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

7) 조선시대 오대산을 유람한 유산기와 상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경순의 논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이경순, 「조선 후기 유람기록을 통해 본 오대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월정사 성보박물관, 2023, pp.55~81).

8) 월정사 성보박물관, 『華嚴 연꽃가지를 들다』(2014), pp.63~113.

9) 월정사 성보박물관, 위의 책, pp.76~139.

<표 1>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기록

번호	명칭	수량	연도	크기(세로×가로), cm	형태
1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1	1660.5.3	26.5×108.2	필사
2	眞如院三重創發願文 2	1	1660	25.5×65.4	필사
3	文殊菩薩造成發願文	1	1661	28×105.7	필사
4	順治十八年發願文	1	1661	27.8×95.5	필사
5	發願文	1	1661.7.10	38.2×58	필사
6	淸信弟子智鏡幻寂平生發願文	1	1661.7	28.2×35.5	필사
7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發願文	1	1661	29×24.7	필사
8	發願文	4	1661.7	22.2×13.7	필사
9	願文	1	1661.6	28.5×116	필사

1.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도 2>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1660년,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공

이 문서는 眞如院의 三重創에 관한 발원문으로 幻寂 義天이 1660년 5월 3일에 작성한 것이다(그림2). 중창 발원문의 구성은 발원문 명칭, 진여원의 창건과 삼중창 연도, 중창 발원 내용, 중창 발원자와 幻寂 義天, 시주자와 불사 소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香閣으로 幻寂堂도 함께 건립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幻寂 義天은 진여원을 중창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文斗와 어머니 李禮西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오대산의 산중 대덕이었던 無影大師, 願凜大師, 德堅은 진여원을 중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大畫員으로 信兼¹⁰⁾과 懷監이 기록된 점이다. 신겸은 진여원의 불화를 담당한 수화승이었고, 회감은 진여원의 文殊菩薩像·五臺五如來像·善財童子像·南巡童子像을 담당한 수조각승이었다. 또한 진여원 중창을 담당한 大木은 法明·信宝·一訓·克玄·尙惠·姜一万 등이고, 幻寂堂을 담당한 大木은 麗輝·能淨·連信이었다.

施主 物目은 重創, 盖板, 佛像, 丹青, 塗排 등이었고 시주자로는 승려와 속인이 동참하였다. 引勸 소임은 승려와 속인이 담당했는데 승려로는 仅圭와 惠淸이, 속인으로는 淸信居士 明俊과 明寂이 참여하였다. 大都監은 印雲과 信悅이 맡았는데 信悅은 大施主와 別坐까지도 겸하였다. 이를 통해 信悅은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 幻寂 義天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幻寂 義天의 제자인 神鏡과 明察은 至誠과 함께 별도의 引勸을 맡았다.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말미에는 香閣인 幻寂堂, 眞如院, 佛相, 盖板, 丹青, 塗排를 化主한 승려와 佛像·佛面·面金·丹青 施主者 등이 기록되어 있다. 향각 환적당 大化主는 惠楚, 진여원 중창 화주는 學禪, 불상 화주는 學文, 개판 화주는 靈坦, 단청 화주는 惠明, 도배 화주는 尙

10) 본 논문에서는 眞如院三重創發願文과 文殊菩薩造成發願文 등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인의 한자명이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彦·印圭·双應·淸侶·澈鏡이 맡았다. 불상의 시주자는 正木 1천필을 시주한 吳論乞 부부이고, 불상 면금을 시주한 이는 金煥源 부부이며, 단청은 徐相男과 命介 부부, 그리고 승려로는 一玉·敬元·印圭·應侶이 참여하였다.

2. 眞如院三重創發願文 2

이 자료는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의 요약본으로 1660년에 幻寂 義天이 작성하였다(그림3). 이 자료에는 大木, 大化主, 佛像·丹青·盖板·幻寂堂의 다양한 잡물을 부조하고 引勸을 권한 인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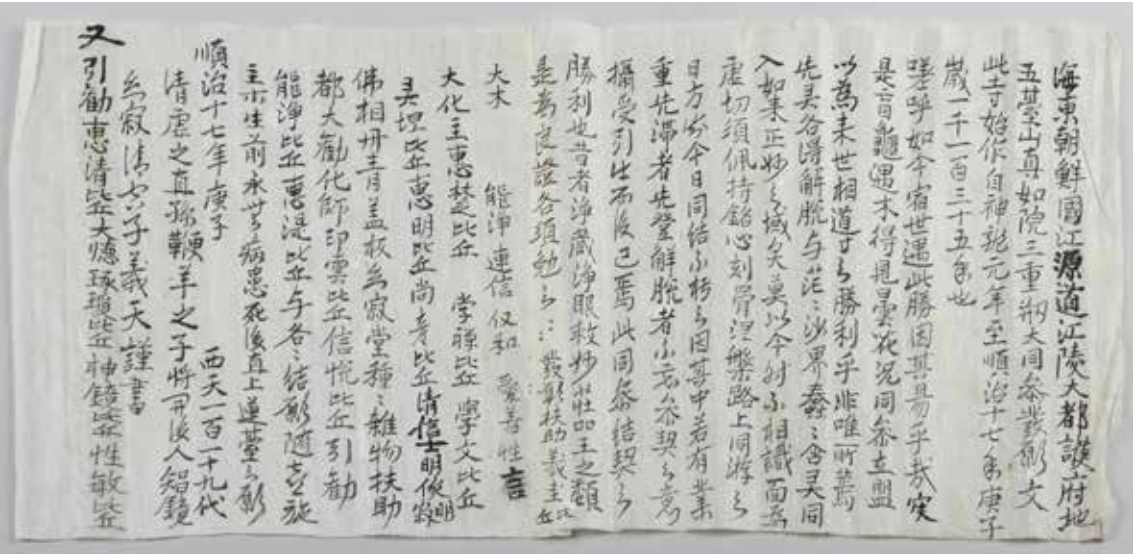


그림2. 眞如院三重創發願文 2, 1660년,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공

大木은 能淨·連信·仅和·愛善·性言 등 5명인데 이 가운데 能淨과 連信만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과 중복된다. 대화주는 惠楚·學禪·學文·靈坦·惠明·尙彦 그리고 淸信士 明俊과 明寂이다. 佛像·丹青·盖板·幻寂堂 등에 시주를 주도한 승려는 印雲과 信悅이며, 大木인 能淨·惠湜·惠淸·琢瓊·神鏡·性敏 등이 引勸을 담당하였다.

3. 文殊菩薩造成發願文



그림4. 文殊菩薩造成發願文, 1661년,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공

이 자료는 상원사 문수보살상 조성에 관한 발원문으로, 1661년에 幻寂 義天이 작성한 것이다(그림4). 발원문의 내용은 문수보살의 眞身이 상주하는 곳으로 오대산을 언급하였고, 진여원이 바로 諸佛都會所임을 서술하였다. 또한 705년에 창건해 옛모습대로 1660년에 삼중창을 한

사실과 1661년에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내력을 기록하였다.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을 화주한 승려는 學文이고, 助緣은 印雲·信悅·志誠이 맡았으며, 大功德主는 幻寂 義天이 맡아 발원문을 작성하였다. 동참자의 발원 내용은 12가지이고, 幻寂 義天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가천도를 발원하였다.

이 자료에는 당시 오대산에 주석하고 있던 산중 대덕을 기록한 점이 중요하다. 산중 대덕에는 願凜 선사를 필두로 崇印·德堅·正日·仅圭·性安·正眼·行修·自悅·剋敏·應卞·尙元·應元·熙遠·尙佛·琢瓊·神鏡·性敏·灵雨·天旭·仅贊·玄仁·智崙·學悅·覺日·學禪·勝學·信性·德運·明察·正雲·惠楚·無說 등 33명이 나열되었다. 이들은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 동참자이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幻寂 義天의 제자인 神鏡과 明察이 산중 대덕으로 기록된 점이 주목된다.

4. 發願文



<도 5> 발원문, 1661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이 자료는 1661년 7월 10일에 幻寂 義天이 기록한 것이다(그림5). 1행부터 12행까지는 여러 존상명을 나열하였고, 12행 하단부터 문수보살상 조성과 관련된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문수보살상의 조성을 化主한 승려는 學文이고, 조각승은 총 5명인데 수조각승 懷鑒, 2위 洗淨, 3위 神彦, 4위 仅玄, 5위 士吉 등이다. 大德 琢瓊을 비롯해 持殿·參證·別坐는 信悅이 담당하였고, 飯頭는 信性和 善文이, 來往은 德運이, 助緣은 文姓과 耑春이, 불상조성 대시주자는 尙宮 过妙蓮이, 대시주는 金歸原 부부와 吳論乞 부부가 맡았다.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며, 문수보살이 36가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봉안하면서, 공덕주이며 증명을 맡아 그가 소원한 바를 기록하였다. 이 자료는 상원사 문수보살상 복장 기록 가운데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5. 順治十八年發願文



그림6. 順治十八年發願文, 1661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이 발원문은 1661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1행부터 26행까지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내용

이 서술되어 있고, 27행부터 28행은 발원 내용, 29행부터 33행까지는 진여원 중창 때 文殊菩薩·五臺五如來, 南巡童子·善財童子, 문수보살이 36종류로 化現한 모습을 그림으로 조성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그림6). 진여원 중창과 함께 여러 존상을 조성하고, 문수보살 36化現을 그려 모셨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6.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發願文

이 발원문은 1660년 또는 1661년에 幻寂 義天이 작성한 것으로, 앞 부분에는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10자를 큰 글씨로 3행 쓴 후 발원문은 3행으로 작은 글씨로 작성하였다(그림7).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은 13세기를 전후해 宋에서 유래한 도교 경전인 『玉樞經』의 중심 神格이다.¹¹⁾ 발원문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 발원문의 특징은 도교에서 중요시하는 『玉樞經』의 중심 신격인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을 세 번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7.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發願文, 1660~1661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그림8. 發願文, 1661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7. 發願文

이 발원문은 1661년 7월에 幻寂 義天이 기록한 것으로 발원문의 주체는 오대산 진여원에 五臺眞聖을 조성한 化主 學文과 大功德主 幻寂이다(그림8). 두 승려의 발원 내용은 소원하는 바가 방해받지 않고, 현생에는 복덕과 수명의 늘어나며, 다음 생에는 정토에 태어나기를 소원한 것이다. 발원문의 수량은 동일 내용이 2매씩 총 4매이다.

이 발원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幻寂 義天이 자신을 지칭하며 쓴 용어이다. 幻寂 義天은 ‘大功德主幻寂’, ‘大功德主乾坤一柱幻寂’, ‘大功德主乾坤一柱幻寂清空子’, ‘大功德主乾坤一柱智鏡幻寂清空子’ 등으로 자신을 기록하였다. ‘乾坤一柱’와 ‘清空子’는 『주역』과 도교의 사상에서 유래한 명칭이고, 幻寂은 號이며, 智鏡은 字이다.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에 불교와 도교의 색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Ⅲ.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기록의 분석

진여원 삼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관한 총 9점의 복장 기록 가운데 진여원 삼중창에 관한 2점의 기록은 1660년에 작성된 것이고, 나머지 기록은 1661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11)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전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옥추경(玉樞經)』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21,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13, pp.285~322; 이정재, 「『玉樞經』의 성립과 활용 및 사상사적 의의」, 『한국종교』 4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pp.147~171.

1661년에 작성된 자료도 6월, 7월, 7월 10일 등 기록된 시점이 각기 다른 점이 특징이다.

상원사 문수보살상 복장 기록에는 幻寂 義天이 도교에 관심이 깊었던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10자를 세 번 중복해 쓴 발원문과,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乾坤一柱’와 ‘淸空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淸空子’는 金時習(1435~1493)이 자호를 ‘淸寒子’라고 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신선인 赤松子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幻寂 義天은 21세에 봉화 청량산에 입산하면서부터 31년 동안 火食을 하지 않고 솔잎만 먹는 辟穀 수행자로도 유명하다.¹²⁾ 幻寂 義天은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新入諸山宗師請」에도 “觀心辟穀 幻寂義天首坐”¹³⁾로 기록되어 있다. 솔잎만 먹으면서 하는 辟穀 수행은 예부터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조선시대 문집에서도 辟穀 수행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광재우는 1602년에 비슬산에서 벽곡 수행을 한 후 익힌 음식을 끊어 道人 같은 풍모를 갖게 되었고, 만년에는 속세를 벗어나 벽곡하고 鍊氣하면서 신선이 된 자들과 같이 우주 밖에서 노닐기를 기약했다.¹⁴⁾

본 장에서는 먼저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幻寂 義天의 행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1660년)과 文殊菩薩造成發願文(1661년)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幻寂 義天의 행장

幻寂 義天의 행장은 제자 楓溪 明察(1640~1708)이 정리한 「幻寂堂大師行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유학자의 눈에 비친 幻寂 義天의 모습은 宋光淵(1638-1695)의 「五臺山記」를 통해 알 수 있다. 幻寂 義天의 법명은 義天이고, 법호는 幻寂이며, 자호는 智鏡이다. 속성은 문씨이고 선산 출신으로, 1603년에 태어나 1690년에 88세로 입적하였다. 그는 淸虛 休靜(1520~1604)의 제자로 鞭羊派의 개조인 鞭羊 彦機(1581~1644)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幻寂 義天은 1613년에 속리산 복천사에 입산한 이후 거처를 옮기면서 수행하다가 1690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88세로 입적하였다. 幻寂 義天이 수행처를 옮겨 다녔던 행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¹⁵⁾

<표 2> 幻寂 義天의 행장

나이	연도	주석처	주석 기간/ 비고
1세	1603		탄생
5세	1607		아버지를 여읜
11세	1613	보은현 종곡	가문의 변고 발생/ 어머니와 함께 외가인 보은현 종곡으로 갑
	1613	속리산 복천사	가을/ 塵靜堂 琢璘선사에게 출가
14세	1616	금강산 정양사	(~1년) 스승을 따라 鞭羊堂 彦機대사 배알
	1616	속리산 동관음사 봉서암	(~3년)

12) 『楓溪集』卷下 「幻寂堂大師行狀」. “至二十一歲癸亥 入淸凉山 立平生誓願云 凡修行人 礪於道者 以其烟火食 攀緣塵世故 因絕粒餌松 索居茲山五年 自此辟穀 乃至三十一年”.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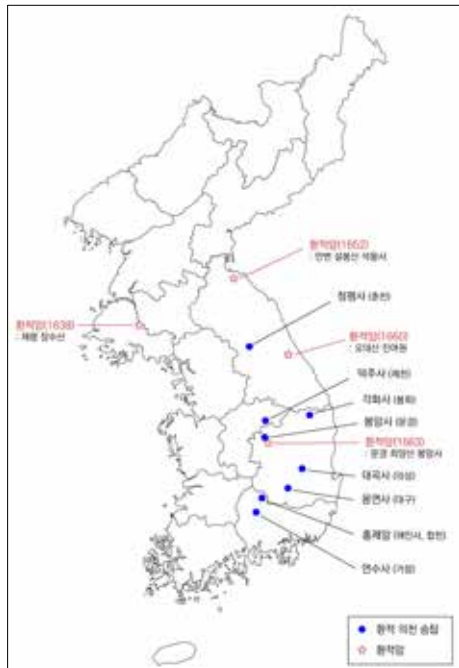
13)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 三卷 仔夔文 五晝夜作法規卷之下.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14) 『葛庵集』권 29 「諡狀」 ‘嘉善大夫行咸鏡道觀察使兼巡察使兵馬節度使 咸興府尹忘憂堂郭公諡狀’. “晚復超然遠引 辟穀鍊氣 將與古之形解尸化者 相期紘垓之外.”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15) 『楓溪集』에 실린 「幻寂堂大師行狀」을 정리한 것이다.

나이	연도	주석처	주석 기간/ 비고
16세	1618		具足戒 수계
	1618	팔공산 동화사	(~5년) / 松溪堂 性賢대사를 參謁하고 經藏과 論藏 수학
21세	1623	청량산 : 경북 봉화	(~5년) / 辟穀을 하면서 수행한 기간이 31년
25세	1627	소백산 진공암	(~3년)
27세	1629	속리산 북면 삼존동	(~3년)
29세	1631	금강산 천덕암	
33세	1635	묘향산 두척굴	(~1년)
34세	1636	재령군 장수산 현암	봄(하안거)
		속리산 견성암	가을(동안거) / 대사의 師翁인 法宗이 창건한 절
36세	1638	재령군 장수산 환적암	(~2년) / 환적암 건립
38세	1640	용문산 북대	3월(하안거)
		속리산 청심암	가을(~1년)
39세	1641	대야산 비로암 : 충북 괴산	봄(~1년) / 비로암 건립
40세	1642	낙영산 도명사 : 충북 괴산	(~2년) / 불상의 증명 법사
42세	1644	가야산 해인사	(~하안거)
		상주 노음산 수미굴	(~동안거)
43세	1645	대야산 석천암 : 충북 괴산	봄(~1년) / 鞭羊堂 입적 부음을 듣고 금강산으로 향하다 역질을 만나 돌아옴
44세	1646	금강산	봄(~1년) / 鞭羊堂 1주기 참례, 탑과 탑비 건립
45세	1647	충북 보은	여름 / 모친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 봉양
		임피현 보천사 : 전북 군산	(~1년) / 사찰 근처에 집을 짓고 어머니를 그 곳에 살게 함
46세	1648	모악산 금산사 남전 : 전북 김제	봄(~3년)
48세	1650	춘천부 경운산 청평사	봄(~3년) / 양신암 중수
50세	1652	함경도 안변 설봉산 석왕사 서동	봄(~2년) / 幻寂庵 건립
51세	1653	황해도 장연 백사정 금사사 미타전	가을 / 모친의 권유로 31년 동안 솔잎만 먹고 살다가 입에 곡기를 대기 시작
52세	1654	황해도 황주 심원산 중굴	봄(~1년)
53세	1655	황해도 황주 심원산 칠성전	봄(~1년)
54세	1656	황해도 연백군 연안 용박산 설암	정월(~석달)
		강음 천진산 금강암 : 황해도 금천	4월 / 5월에 모친상
55세	1657	춘천 청평사 양신암	봄(~하안거)
		한계산 상승암 : 강원도 인제	가을[7월](~2년)
58세	1660	오대산	봄(~3년) / 진여원 중건, 문수보살상 조성 및 봉안, ¹⁶⁾ 환적암 수리 ¹⁷⁾
60세	1662	문경 희양산 봉암사	가을(~겨울 지냄) / 원문에는 66세로 잘못 기록됨
61세	1663	봉암사 서쪽 백운대	봄(~하안거) / 幻寂庵 건립
		오대산 보제암	가을(~동안거)
62세	1664	설악산 봉정암	(~3년) / 봉정암 옛 터에 板屋을 짓고 수행
64세	1666	문경 희양산 봉암사	(~1년) / 十王像 조성에 증명 법사 맡음
65세	1667	속리산 견성암	봄(~6년)
70세	1672	오대산 신성암	봄(~10년) / 신성암 건립
79세	1681	월악산 덕주사 : 충북 제천[옛 충주]	가을[8월](~1년) / 가야산으로 가던 중 월악산 덕주사에 도착
81세	1683	가야산 해인사 서전	봄(~3년)
82세	1684	황악산 직지사 견불암 : 경북 김	정월(~1년) / 이곳에 주석해 달라는 청을 받음

나이	연도	주석처	주석 기간/ 비고
		천	
83세	1685	가야산 해인사 서전	봄(~하안거)
		소백산 묘적사 : 경북 예천	8월(~동안거)
84세	1686	태백산 각화사 동암 : 경북 봉화	봄(~1년)
85세	1687	가야산 해인사 백련암	봄
87세	1689	가야산 해인사 백련암	發病
88세	1690		入寂



<도 9> 幻寂 義天의 승탑과 幻寂庵 분포도, ©유근자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幻寂 義天은 속리산, 금강산, 팔공산, 청량산, 소백산, 묘향산, 장수산, 용문산, 대야산, 가야산, 노음산, 모악산, 경운산, 심원산, 오대산, 희양산, 태백산 등지에서 수행하였다. 주로 경상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 등지의 사찰에 주석하였고, 한 곳에 머문 기간은 한 철에서 10년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1~3년씩이다.

「幻寂堂大師行狀」에는 입적 후 수습한 사리 7매를 문경 봉암사, 춘천 청평사, 충주[제천] 덕주사, 대구 용연사, 태백산 각화사, 거창 연수사, 해인사 사명당 대사 탑비 옆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고, 頂骨은 인동 대곡사에 봉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8개의 사찰에 사리와 정골을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 현재 幻寂 義天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은 문경 봉암사, 춘천 청평사, 충주(제천) 덕주사, 해인사 흥제암에 있는데 이 승탑들은 幻寂 義天의 법호나 법명이 확인된 것이다.¹⁸⁾

幻寂 義天의 승탑이 있는 사찰은 그의 행장에서 확인되듯이 생전에 인연이 있던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

나 거창 연수사와 인동 대곡사는 「幻寂堂大師行狀」에는 등장하지 않는 곳이다. 楓溪 明察이 스승의 사리탑을 건립하기 위해 쓴 권선문은 해인사 흥제암에 관한 것으로 「幻寂堂浮屠勸文」만이 남아 있다.¹⁹⁾

幻寂 義天은 17세기 승려 가운데 선망 부모의 영가천도와 개인의 願佛을 조성한 기록과 실물을 모두 남기고 있다. 전자와 관련된 불상은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61년)이고, 후자와 관련된 願佛은 문경 봉암사 백운대 마애미륵여래좌상(1663년)이다.²⁰⁾ 幻寂 義天은 조선 후기 승려 가운데 벽암 각성²¹⁾과 비교할 정도로 많은 불사를 행했다. 사찰을 중수하거나 창건하였

16) 풍계 명찰은 幻寂 義天이 1660년에 진여원을 중건하였고, 환적암을 중수했으며, 문수보살상을 조성해 봉안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幻寂 義天이 쓴 발원문에는 1661년에 문수보살상을 조성해 봉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7) 풍계 명찰은 「幻寂堂大師行狀」에서 환적암을 수리한다고 기록했지만, 幻寂 義天이 쓴 「진여원삼중창발원문」(1660년)에는 환적당을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 어현경,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p.24~26.

19) 『楓溪集』卷下 「幻寂堂浮屠勸文」,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20) 어현경,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21) 유근자,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 「施主秩」 분석」, 『미술자료』100, 국립중앙박물관, 2021, pp.126~127.

고, 자신의 법호를 사용한 幻寂庵을 지었으며, 불상과 보살상을 조성하거나 증명을 맡았다. 사찰을 창건한 예로는 황해도 재령 장수산 환적암(1638년), 대야산 비로암(1641년), 안변 석왕사 환적암(1652년), 평창 오대산 진여원 중창과 환적당(1660년), 문경 봉암사 백운대 환적암(1663년), 오대산 신성암(1672년) 등이다. 오대산 진여원 중창을 제외하고 6개의 암자를 창건하였다. 이 가운데 대야산 비로암과 오대산 신성암을 제외한 4개의 암자는 자신의 법호를 사용해 건립한 점이 주목된다. 1650년에는 청평사 양신암을 중수하였다(표 3).

<표 3> 幻寂 義天이 창건·중수한 사찰 및 암자명

연도	연령	사찰명	주석 기간
1638(戊寅年)	36세	황해도 재령 장수산 환적암	2년
1641(辛巳年)	39세	문경 대야산 비로암	1년
1650(庚寅年)	48세	춘천 청평사 양신암 중수	3년
1652(壬辰年)	50세	안변 석왕사 환적암	2년
1660(庚子年)	58세	진여원 중창 /진여원 환적당 건립	3년
1663(癸卯年)	61세	문경 봉암사 환적암	봄
1672(壬子年)	70세	평창 오대산 신성암	10년

幻寂 義天은 자신의 법호를 사용한 幻寂庵을 짓고 한 철에서 3년을 주석하였다. 오대산 신성굴은 幻寂 義天이 70세(1672년)에 창건한 사찰로 그는 이곳에서 10년 간 주석하였다. 幻寂 義天의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 수행처로 삼은 곳이 바로 오대산 신성암으로, 이곳은 상원사를 창건한 寶川이 수행하던 신성굴이 있던 곳으로 짐작된다.

幻寂 義天은 공덕주가 되어 불상을 조성했거나 불상을 조성하는데 증명을 맡았다. 1642년에는 괴산 낙영산 道明寺의 불상을 조성하는데 증명을 맡았고, 1661년에는 오대산 진여원 문수보살상을 조성하였다. 1663년에는 문경 봉암사 백운대 미륵마애불상을 조성했고, 1666년에는 봉암사 시왕상을 조성하는데 증명 법사를 맡았다.

17세기 유학자 송광연의 기록을 통해 幻寂 義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송광연은 1676년 9월 7일부터 8일 이틀 간 오대산을 유람하고 「五臺山記」를 남겼는데, 신성굴에서 수행 중인 幻寂 義天을 만나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남여를 재촉해 곧바로 中臺로 향했다. 시내를 따라 10여 리 올라가서 神聖窟에 도착하였다. 한 무더기 바위가 시냇가에 우뚝 솟았고,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다. 위에 精舍 한 칸을 새로 지어놓고 수좌승 義天이 머물면서 자신의 호를 幻寂堂이라 하였다. 의전은 가만히 앉아 도를 닦아 정신과 풍채가 의연하고, 나이가 일흔 넷인데도 얼굴에 젊은이의 광채가 가득하다. 젊을 때부터 솔잎을 항시 복용하여 기력을 얻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의전이 스스로 말하기를 俗家가 善山에 있으며 李百宗 등과 서로 친한 사이라고 한다. 여러 승려들이 말하기를 본래는 선산의 大族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지조와 행실이 여느 승려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²²⁾

송광연의 「五臺山記」(1676년)는 1660년에 진여원이 중창된 후 16년이 지난 기록으로, 당시 오대산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 幻寂 義天은 1672년(70세)에 신성암을 건립하고 이곳에 수행 중이었다. 이때 송광연은 1676년에 신성암에서 수행 중이던 幻寂 義天을 만나 그와 직접 대화하였다. 幻寂 義天은 젊을 때부터 솔잎을 항시 복용해 기력을 얻었기 때문에 74

22) 송광연, 『泛虛亭集』卷7 「五臺山記」.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 퇴우정님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오대산의 인문학』, 도서출판 산책, 2019, pp.182~184.

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난다고 했던 것이다. 이같은 송광연의 기록은 楓溪 明察이 쓴 「幻寂堂大師行狀」과 청평사에서 스승인 幻寂 義天의 소상을 맞아 쓴 「祭幻寂堂小祥文」의 내용과도 부합한다.²³⁾

幻寂 義天이 진여원 문수보살상 복장에 넣은 복장물 가운데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蜜多經’으로 시작하는 필사본이 있다.²⁴⁾ 이 자료에는 두 가지의 영험담이 실려있는데, 당나라 오대산 將開法師와 신라 황룡사의 開善法師가 수명 장수한 이야기이다. 이 경전을 독송한 공덕으로 將開法師는 390년을, 開善法師는 300년을 살았으며, 죽은 후 將開法師는 도솔천[또는 도리천]에 왕생하였고, 開善法師는 인도 바라나시국의 천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다. 幻寂 義天은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蜜多經’을 필사하면서 수명 장수하기를 기원하였고, 자신이 바로 ‘將開法師’의 後人임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眞如院三重創發願文 2에는 “淸虛之孫 鞭羊之子 將開後人 智鏡幻寂 淸空子義天”²⁵⁾이라고 해 幻寂 義天 자신을 ‘將開後人’으로 표현하였다.

2. 진여원의 위치

幻寂 義天은 1660년(58세)에 진여원을 중창하였고, 1661년(59세)에는 문수보살상을 조성하였다. 진여원은 寶川과 孝明이 705년에 창건한 후 幻寂 義天이 삼중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진여원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과 고려 후기 閔漬(1248-1326)가 쓴 『五臺山事蹟』(1307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동대 관음방, 남대 지장방, 서대 미타방, 북대 나한당, 중대 진여원·화장사·문수갑사가 있는 것²⁶⁾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비해 『오대산사적』에는 동대 관음방, 남대 지



<도 10> 오대와 사찰 위치

장방, 서대 미타방, 북대 나한당, 중대 진여원·화엄사·문수갑에 佛下院을 더 배정해 산내 六社가 모두 모이는 都會處로 삼도록 하였다(그림10).²⁷⁾ 『삼국유사』에는 중대에 진여원·화장사·문수갑사를 기록한 반면, 『오대산사적』에는 진여원·화엄사·문수갑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진여원과 화엄사에는 5명의 수행자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밤에는 예참을 염송하도록 하였고, 문수갑에는 불하원을 더 배정해 7명의 승려로 하여금 신중을 예념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5명

의 승려가 五臺에 주석하며 진여원과 화엄사에서 주야로 경전을 독송하고 예참을 염송하도록 한 것은 바로 幻寂 義天이 문수보살상과 ‘五臺五如來’를 함께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진여원이 다시 등장한 것은 幻寂 義天이 삼중창한 1660년에 이르러서이

23) 『楓溪集』 卷之下 「祭幻寂堂小祥文【在淸平寺】」. “솔잎을 먹고 곡기를 끊었으며 삼십 년 동안 수도에만 전념했네[餌松絕粒 三十年彊]”.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24)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2014, pp.128~129.

25)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2014, pp.32~35.

26) 『三國遺事』卷 제4 塔像 「臺山五萬眞身」.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7) 국립춘천박물관·월정사정보박물관, 『오대산 월정사』, 2023, pp.175~176.

다. 진여원의 중창 시기는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幻寂 義天이 기록한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2를 통해 1660년에는 삼중창했음을 알 수 있다. 幻寂 義天이 삼중창한 진여원은 이후 오대산을 방문한 유학자들의 유산기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송광연의 「五臺山記」(1676년),²⁸⁾ 정시한의 「山中日記」(1687년 기록),²⁹⁾ 김창흡의 「五臺山記」(1718년),³⁰⁾ 강재항의 「五臺山記」(1727년)³¹⁾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幻寂 義天이 삼중창한 진여원과 창건한 환적당 및 신성암을 가장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송광연의 글이다.

이에 의천의 문도들이 번성하여 志業을 쉽게 성취하였으며, 산 속에 암자를 여럿 세웠는데 진여원과 신성굴이 가장 이름난 암자이다. 신성굴 아래에 또한 오래된 초가집 터가 있는데 신라의 왕자가 정신을 수양하고 도를 닦던 곳이다. 의천은 자신의 문도에게 이곳에 암자 하나를 짓게 하였다.

다시 10여 리를 가서 화엄암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곧 신라 성덕왕인 효명이 불교에 귀의했을 때 머물렀던 곳이다. 다시 환적당을 보았다. 진여원의 승려 의천은 진여원을 중건하였다. 아래에 당을 짓고 그의 법호로 편액을 걸었다. 수좌승 珠戒가 머물고 있다.

…(중략) 중대 아래에 기가 모인 곳이 상원사이고, 상원사 아래가 진여원, 환적당, 화엄암이며, 적멸보궁의 오른쪽이 금몽암이다. 수좌승 自彦이 거처하며 보궁 佛尊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몽암 아래는 사자암인데 승려가 없어 허물어지려 하니, 애석하고도 애석하다.³²⁾

1676년에 오대산을 방문한 송광연은 幻寂 義天의 문도가 세운 오대산의 여러 암자 가운데 진여원과 신성굴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하였다. 송광연의 기록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원사, 진여원, 환적당, 화엄암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즉 상원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진여원, 환적암, 화엄암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丁時翰(1625~1707)은 1687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오대산을 방문했다. 그가 남긴 「山中日記」에는 방문 당시 오대산에서 만난 승려들과 사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시한은 진여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1687년 10월 8일 영감사에서 10여 리를 가서 신성암에 도착했는데, 신성암 역시 幻寂 義天이 1672년에 신축한 탓에 정시한이 방문했을 당시 암자 연못의 彩閣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幻寂 義天이 창건한 신성암은 정시한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幻寂 義天이 1681년에 가야산으로 떠난 후 이곳에서 수행하던 승려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³³⁾

정시한은 10월 11일 북대를 거쳐 상원사를 방문하고 진여원으로 내려왔다. 그가 본 진여원은 중창한 지 오래지 않아 금빛과 푸른빛이 휘황찬란하였고, 진여원에서 내려온 보질도암은 불만한 것이 없다고 평하였다.³⁴⁾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삼중창한 지 27년이 지난 후에도 진여원은 여전히 단청이 찬란한 반면, 보질도암은 수행처로서만 기능하고 있었으며, 1672년에 창건한 신성암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진여원이 18세기에 들어서 眞如閣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은 金昌翁(1653~1722)의 유산기를 통해 확인된다. 김창흡은 1718년 윤 8월에 오대산을 방문하였다. 그는 신성굴을 방문하고 “옛

28) 『泛虛亭集』권7 「五臺山記」.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9) 『愚潭集』 「山中日記」

30) 『三淵集』卷24 「五臺山記」.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1) 『立齋遺稿』卷12 「五臺山記」.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2) 송광연, 『泛虛亭集』권7 「五臺山記」.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옥 지음, 앞의 책, 2019, pp.182~184.

33)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옥 지음, 앞의 책, 2019, p.193.

34)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옥 지음, 앞의 책, p.197.

날에 이름난 승려가 기거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황폐한 터가 되었다. 20여 리를 가서 상원사에 도착하였다.”³⁵⁾고 기록해, 정시한이 방문했던 1687년 이후 신성굴[암]은 폐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이 언급한 ‘옛날에 이름난 승려’는 다름 아닌 幻寂 義天을 의미한다. 또한 신성굴에서 상원사까지의 거리가 20여 리가 된다는 것을 통해 신성굴의 위치를 추정케 한다.

김창흡은 상원사를 거쳐 진여원에 도착하였다. 그는 “(상원사) 왼편에 眞如閣이 있고, 불전에는 문수보살이 서른 여섯 가지로 변신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한 번 웃음 짓게 한다.”³⁶⁾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는 진여원의 위치가 상원사의 왼편이라는 점이다. 송광연과 정시한은 상원사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만을 언급한 반면, 김창흡은 왼쪽이라는 점을 기록해 상원사 아래 왼쪽에 진여원이 위치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는 진여원이 진여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1660~1661년에 幻寂 義天이 조선헌 봉안한 문수보살 36變身 불화가 1717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송광연과 정시한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김창흡은 문수보살 36變身圖를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姜再恒(1689~1756)은 1727년 9월에 김창흡의 「五臺山記」를 참조하면서 오대산을 방문하였다. 그는 “신성굴을 지나 상원사와 사자암을 거쳐 금몽암에서 잠시 쉬었다.”³⁷⁾고 할 뿐 신성굴에 대한 이야기는 남기고 있지 않다. 또한 그는 “상원사에서 왼편으로 돌아 眞如閣에 들러 三十六變相을 보았다.”³⁸⁾고만 기록하였다.

17세기 후반의 송광연과 정시한, 18세기 전반의 김창흡과 강재항의 유산기를 통해 幻寂 義天이 삼중창한 진여원과 그가 창건한 신성암[굴]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진여원은 17세기 후반까지는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18세기 전반에는 진여각으로 변하였다. 신성암[굴]은 幻寂 義天이 해인사로 가기 위해 1681년 이곳을 떠난 후 얼마되지 않아 폐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창흡과 강재항의 유산기에는 진여원의 위치가 상원사 왼쪽이며, 상원사에서 신성굴까지의 거리가 20여 리가 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3.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조성 목적과 幻寂 義天

1) 조성 목적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삼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가장 큰 목적은 선망 부모의 영가 천도를 위해서였다. 楓溪 明察이 쓴 「幻寂堂大師行狀」에는 아버지의 이름은 文斗로 성균관 진사였고 淑淨先生으로 불렸으며, 어머니 崇善夫人 이씨는 교수관 이세번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³⁹⁾ 幻寂 義天이 쓴 眞如院三重創發願文 1(1660년)과 文殊菩薩造成發願文(1661년)에는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돌아가신 일국의 청명한 도덕으로 성균관 장원인 숙정선생 文斗와 仙母이신 송선부인 이씨 禮西 두 분 선영께서는 이 원력에 의하여 모두 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한다[仙父一旺清明道德成均狀元淑淨先生文斗 仙

35)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221; 『三淵集』卷24 「五臺山記」. “有神聖窟在其側 古名僧所棲 今爲廢址矣 行二十里到上院”.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6)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222.; 『三淵集』卷24 「五臺山記」. “左有眞如閣 殿畫文殊三十六變態 可供一笑”.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7)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243.; 『立齋遺稿』卷12 「五臺山記」. “過神聖窟 歷上院獅子庵 小憩金夢庵”.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8)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245.; 『立齋遺稿』卷12 「五臺山記」. “自上院左轉 過眞如閣 觀所謂三十六變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39) 『楓溪集』卷下 「幻寂堂大師行蹟」. “考諱斗 成均進士 號稱淑淨先生…母崇善夫人李氏. 教授官李世蕃之女也”.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母崇善夫人李氏禮西兩位仙靈之位]”⁴⁰⁾는 내용이 그것이다.

幻寂 義天의 부친은 그가 5세 때인 1607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李禮西는 그의 나이 54세 때인 1656년 돌아가셨다. 일찍 아버지와 사별한 幻寂 義天은 고향 경상도 선산에서 외가가 있는 보은으로 11세 때인 1613년에 어머니와 함께 이주하였다. 幻寂 義天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45세 때인 1647년에 어머니가 계신 보은으로 돌아왔고, 같은 해 모친과 함께 군산 임피로 이주해 보천사 근처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셨다. 1656년 4월 어머니와 사별한 幻寂 義天은 1657년 하안거는 춘천 청평사 양신암에서 지냈다. 그후 강원도 인제 한계산 상승암으로 거처를 옮겨 이곳에서 2년간 수행하였다.

1660년 봄에 오대산으로 수행처를 옮긴 幻寂 義天은 진여원을 삼중창하고 환적당을 건립하였다. 다음 해에는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후 이곳에서 3년간 수행하였다. 모친의 3년상을 치른 幻寂 義天은 1660년~1661년에 오대산 진여원과 환적당 그리고 文殊菩薩像·五臺五如來像, 善財童子·南巡童子, 文殊菩薩 36變身圖를 조성하고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1662년 오대산을 떠나 문경 봉암사에서 2년을 보낸 幻寂 義天은 1663년 가을에 오대산 보제암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동안거를 보냈다. 그후 70세가 된 1672년에 다시 오대산으로 수행처를 옮긴 幻寂 義天은 신성암을 창건하였고, 이곳에서 10여 년 간 수행하였던 것이다.

2) 『禮念彌陀道場懺法』의 복장 납입과 영가 천도



그림11. 『禮念彌陀道場懺法』, 1474년,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幻寂 義天이 선망 부모의 영가 천도를 위한 목적으로 진여원을 삼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것은 복장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복장 전적 가운데 『禮念彌陀道場懺法』(1474년, 그림11)이 그것이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조선시대 아미타신앙과 불교의 참회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金의 정토종 신도인 極樂居士 王子成이 정토의 인연력을 모아 1213년에 저술하였다. 이 책은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게 하는

禮懺 의식의 절차와 내용을 소개한 의식집이다.⁴¹⁾ 고려 천태승 順菴 義旋(1284?~1355)은 중국과 고려 불교계 전반에 유행하던 정토신앙과 말법신앙 및 참회의 영향으로 『예념미타도량참법』을 1332년에 重刻해 널리 보급하였다. 조선 초 세조의 비 정희왕후와 성종의 모친 인수대비 등이 돌아가신 왕실 인물의 극락왕생을 위해 『예념미타도량참법』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6·17세기까지도 지속되어 해인사 및 송광사에서 판각되어 미타정토신앙과 참법은 조선 후기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예념미타도량참법』은 『念佛普勸文』과 『小彌陀懺』으로 분화되었다.⁴³⁾ 『念佛普勸文』은 1704년에 예천 용문사 승려 明衍이 편찬하였는데,⁴⁴⁾ 그후 수도사 본(1741년), 동화사 본(1764년),

40) 월정사 성보박물관, 앞의 책, p.30, p.225.

41) 김도윤, 「여말선초 『예념미타도량참법』의 전래와 전개-『소미타참』의 유래와 관련하여-」, 『한국불교사연구』22, 한국불교사학회, 2022, p.336.

42) 계미향, 「고려 의선(義旋)의 삼장법사 법호 고찰」, 『한국불교학』101, 한국불교학회, 2022, p.244.

43) 김도윤, 앞의 논문, 2022, pp.333-363.

해인사 본(1776년) 등에서 보다시피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18세기에 판각되었다.⁴⁵⁾ 『念佛普勸文』은 『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의 명칭에서 보듯이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내용을 가려 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幻寂 義天은 여러 점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五百佛名經第一佛名’로 시작하는 발원문⁴⁶⁾의 ‘南無東方解脫王~南無清淨大海眾菩薩摩訶薩’까지의 내용은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에 실려 있다(그림12).⁴⁷⁾ 복장으로 『예념미타도량참법』을 납입하고, 직접 그 내용의 일부를 필사해 발원문을 작성한 것을 통해, 幻寂 義天은 『예념미타도량참법』에 의해 선망 부모의 영가천도를 기원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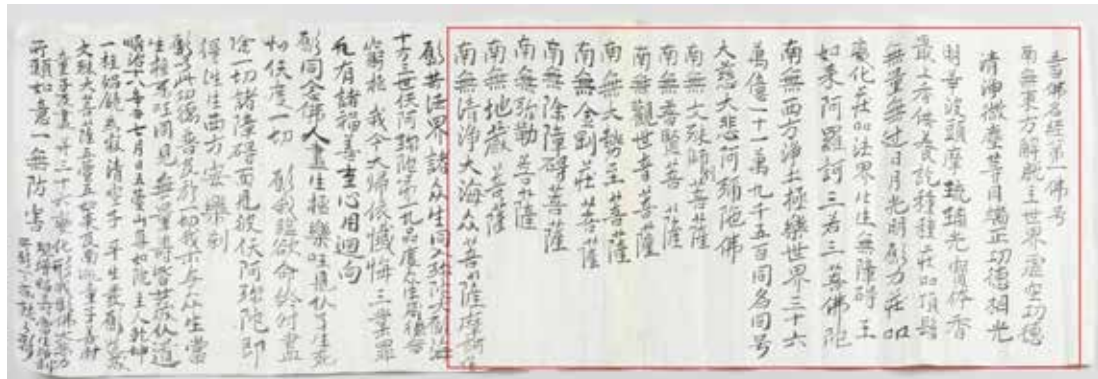


그림 12. 順治十八年發願文, 1661년,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幻寂 義天이 필사해서 진여원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에 납입한 다양한 종류의 천수다라니, 관세음보살모다라니, 수구다라니, 불설아미타본심미묘진언 등과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 등은 寶川과 孝明이 상원사를 창건한 후 내려오던 오대산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과 『오대산사적』 「오대산의 聖跡 및 신라 정신태자와 효명태자의 전기」를 통해 幻寂 義天이 문수보살상 복장으로 다라니와 진언 그리고 경전을 납입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대산 신앙에서 주목되는 것은 五臺에 불·보살·나한 등을 봉안하고 낮에는 경전을 독송하며 밤에는 禮懺를 하였다는 점이다.

東臺에서는 북쪽 모서리에 관음방을 설치하고 관음보살상과 관음보살도를 봉안한 다음 밤에는 관음예참을, 南臺에는 남쪽에 지장방을 설치하고 지장보살상과 8대보살·지장보살도를 봉안한 다음 밤에는 점찰예참을, 西臺 남쪽에 미타방을 설치하고 무량수불과 대세지보살도를 봉안한 다음 밤에는 미타예참을, 北臺 남쪽에 나한방을 설치하고 석가불상과 미륵보살·나한도를 봉안한 다음 열반예참을, 中臺 진여원에는 문수보살상과 문수보살 36化現圖를 봉안하고 화엄예참을 행하였다⁴⁸⁾는 것이다. 관음예참, 점찰예참, 미타예참, 열반예참, 화엄예참을 행한 오대산의 신앙 형태는 幻寂 義天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의 신앙과 예참을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4) 김기종, 「18세기 『염불보권문』의 편간과 불교사적 의미」, 『불교학연구』54, 한국불교학회, 2018, pp.149-181.

45)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60,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151-188.

46) 월정사 성보박물관, 앞의 책, pp.40~43.

47) 『禮念彌陀道場懺法』卷 6.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48) 『五臺山事蹟』 「五臺山聖跡并新羅淨神太子孝明太子(傳記)」.

<표 4> 오대산 신앙과 예참

	내용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중대
1	사찰명	관음방	지장방	미타방	나한방	진여원
2	봉안 존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무량수불	석가불상	문수보살상
3	봉안 불화	관음보살도	8대 보살·지장보살도	무량수불·대세지보살도	석가불·미륵보살·나한도	문수보살·36화신도
4	독송 경전 [낮]	금광명경 반야경 인왕반야대비심주 천수주	지장경 금강반야경	법화경	불보은경 열반경	화엄경 육백반야경 대반야경
5	예참[밤]	관음예참	점찰예참	미타예참	열반예참	문수예참 화엄예참
6	결사 종류	원통결사	금강결사	수정결사	백련결사	화엄결사

<표 4>에서 보듯이 오대산 신앙에서 존상과 후불도를 봉안하고 낮에는 경전이나 다라니를 염송하고, 밤에는 예참을 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東臺에는 관음보살상과 관음보살도를 봉안하고 낮에 千手呪를 독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원사 문수보살상 복장에서 천수주와 관세음보살모다라니가 발견된 것은 이러한 오대산 신앙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예념미타도량참법』을 납입한 것 역시 西臺에서 밤마다 행했던 미타예참과 관련이 있고, 필사본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경』이 2매 납입된 것은 中臺 진여원에서 행해 왔던 문수예참을 상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3) 阿彌陀本心微妙眞의 판각 및 필사

幻寂 義天은 1637년 2월 20일에 ‘阿彌陀本心微妙眞言’을 써 목판에 새겨 판각하였다. 이 목판을 새긴 이유는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발생한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幻寂 義天은 1636년 봄에 재령 장수산 현암에서 하안거를 보낸 후, 가을에는 속리산 견성암에서 동안거를 보내면서 병자호란을 피했다. 그리고 1638년 봄에 다시 장수산에 들어가 환적암을 건립한 후 2년 동안 주석하였다. ‘阿彌陀本心微妙眞言’을 판각할 당시 幻寂 義天은 장수산 현암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병자호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고, 이들의 영가천도를 위해 ‘阿彌陀本心微妙眞言’을 판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幻寂 義天의 아미타신앙은 1660년 오대산 진여원을 삼중창하고, 1661년 목조문수보살상을 조성하면서 자신이 평소 써 왔던 ‘阿彌陀本心微妙眞言’을 새로 필사하였고, 1637년에 판각해 두었던 판본을 인경해서 복장으로 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幻寂 義天은 자신이 새긴 목판을 소지하고 다녔거나, 재령 장수산 현암에서 판각한 이후 이것을 사용해 재인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4. 진여원 중창과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 분석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은 승려와 俗人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승려 동참자는 84명인데 이들은 주로 化主, 引勸, 施主 등을 맡았다. 이 가운데 幻寂 義天은 조성발원문을 쓰고 불사를 주도한 공덕주 및 증명을 맡았다.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참여한 승려를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진여원 중창문과 문수보살상 발원문에 등장하는 승려

	법명	진여원 중창발원문 1(1660년)	진여원 중창발원문 2(1660년)	문수보살상조성 발원문 1(1661년)	문수보살상 발원문 2(1661년)
1	覺日			山中大德	
2	敬元	丹青大施主			
3	剋敏, 克敏			山中大德	
4	克玄	大木			
5	能淨	大木	大木 引勸		
6	德堅	山中名現大德(參道人)		山中大德	
7	德雲, 德運	丹青大施主		山中大德	來往
8	明察	大德引勸兼		山中大德	
9	妙叩	佛像大施主		大施主	
10	無說	大德		山中大德	
11	無影	山中名現大德 (大師)			
12	文姓				助緣
13	敏英	○			
14	敏洪	○			
15	法令			大施主	
16	法明	大木			
17	法淨			大施主	
18	宝明			大施主	
19	奉德			大施主	
20	士吉				畫負
21	三玄			大施主	
22	尙佛			山中大德	
23	尙彦	塗排化主	大化主		
24	尙元			山中大德	
25	尙惠	大木			
26	釋敏			名現大德	
27	善文				飯頭
28	性敏	大別坐	引勸	山中大德	
29	性彦, 性言	大施主兼別坐	大木		
30	性安			山中大德	
31	洗淨				畫負
32	遂玄	佛像大施主		大施主	
33	崇印			山中大德	
34	勝学			山中大德	
35	信兼	大畫員			
36	神鏡	大德引勸兼	引勸	山中大德	
37	信宝	大木			
38	信性			山中大德	飯頭
39	神彦				畫負
40	信悅	佛像大施主	都大勸化師	助緣	持殿參證別坐

	법명	진여원 중창발원문 1(1660년)	진여원 중창발원문 2(1660년)	문수보살상조성 발원문 1(1661년)	문수보살상 발원문 2(1661년)
		大都監 大施主兼別坐			
41	双應	塗排化主			
42	愛善		大木		
43	麗輝	大木			
44	連信	大木	大木		
45	灵雨			山中大德	
46	灵坦	盖板 化主	大化主		
47	應侶	丹青大施主			
48	應卞			山中大德	
49	應元			山中大德	
50	仅圭	引勸	發願扶助	山中大德	
51	義誼			名現大德	
52	仅贊			山中大德	
53	義天	발원문 작성	발원문 작성	발원문 작성	발원문 작성 功德主亦兼證 叅
54	仅和		大木		
55	仅玄				畫貞
56	頤凜	山中名現大德(大禪)		山中大德	
57	印圭	塗排化主 丹青大施主			
58	印雲	丹青大施主 大都監	都大勸化師	助緣	
59	一玉	丹青大施主			
60	一訓	大木			
61	自悅			山中大德	
62	正心			大施主	
63	正眼			山中大德	
64	正日			山中大德	
65	正雲			山中大德	
66	至誠	大德引勸兼		助緣	
67	智嘗			山中大德	
68	天旭			山中大德	
69	澈鏡	塗排化主			
70	淸侶	塗排化主			
71	琢瓊	大德	引勸	山中大德(大德)	大德
72	学文, 學文	佛相化主	大化主	發願化主	發願造相化主
73	学禪	眞如院 重創化主	大化主	山中大德	
74	学悅			山中大德	
75	玄仁			山中大德	
76	行修			山中大德	
77	行正	佛像大施主		大施主	

	법명	진여원 중창발원문 1(1660년)	진여원 중창발원문 2(1660년)	문수보살상 조성 발원문 1(1661년)	문수보살상 발원문 2(1661년)
78	慧堂			名現大德	
79	惠明	丹青化主	大化主		
80	惠湜		惠湜		
81	惠淸, 惠淸	引勸	引勸		
82	惠楚	香閣 幻寂堂 大化主	大化主	山中大德	
83	懷監, 懷鑒	大畫員			造相大畫員
84	熙遠, 希遠			山中大德	
총		44명	20명	50명	13명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승려는 幻寂 義天·信悅·德雲(德運)·琢瓊·學文(學文)·學禪·惠楚 등이다. 信悅은 진여원 중창하는데 大都監·別坐·都大勸化師를 맡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할 때는 助緣·持殿·證明·別坐를 담당하였다. 幻寂 義天이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승려는 바로 信悅이다.

진여원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 발원하고 화주를 맡은 승려는 學文이고, 조연은 印雲·信悅·志誠이, 대원력 공덕주는 義天이 맡았다. 이를 통해 발원문에 기록된 5명의 승려가 불상 조성 불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진여원을 삼중창하고 문수보살상 조성을 주도한 幻寂 義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과 여러 선망 부모의 영가전도를 발원하였다.

幻寂 義天이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할 당시 오대산 사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승려는 願凜과 仅圭이다. 願凜은 산중의 명현대덕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仅圭는 진여원 중창의 引勸 소임과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는 發願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송광연이 1676년 오대산을 유람했을 때 仅圭는 상원사에서 승려 三印 및 性虛와 함께 수좌승으로 수행 중이었다.⁴⁹⁾ 정시한은 오대산 적멸보궁에 올라 이곳은 願凜 首座가 중창하였고, 願凜은 승려 性淨의 제자이며, 仅圭는 願凜의 제자라고 하였다.⁵⁰⁾ 性淨은 바로 오대산 상원사 목조제석전상을 1645년에 중수할 때 증명을 맡은 승려로,⁵¹⁾ 화계사 명부전 존상(1649년)과 속초 신흥사 명부전 존상(1651년)을 제작할 때 시주자 또는 증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시한이 1687년 오대산을 찾아갔을 때 승려 仅圭는 적조암에 머물렀는데 당시 나이가 81세였다.⁵²⁾ 정시한은 이때 월정사에서 1625년 생인 승려 熙遠(希遠)을 만난 사실도 기록하였다.⁵³⁾ 이를 통해 熙遠(希遠)이 1660~1661년에 오대산에 머물던 당시의 나이는 36세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幻寂 義天의 제자 信鏡과 明察이다. 이들은 진여원을 중창하는데 引勸을 맡았고, 진여원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승 곁에서 머물고 있었다. 信鏡은 이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응·탁밀파가 조성하는 불상에 증명을 맡고 있다.⁵⁴⁾

49) 퇴우정님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2019, p.183.

50) 퇴우정님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196; 유근자, 앞의 논문, 2021, pp.276.

51) 유근자, 앞의 논문, 2021, p.270, p.276.

52) 퇴우정님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193. 정시한은 수좌 의규의 나이를 앞에서는 81세, 뒤에서는 90세(앞의 책, p.195)로 표현하고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53) 퇴우정님 감수, 권혁진·허남욱 지음, 앞의 책, pp.191~199.

54) 한길중, 「조선후기 목각설법상 연구」, 『불교미술사학』29, 불교미술사학회, 2020, pp.143~180.

信鏡이 증명을 맡고 있는 불상은 대부분 아미타불상이고, 특히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설법상 테두리에 『주역』의 12벽괘가 새겨진 것⁵⁵⁾은 스승 幻寂 義天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명찰은 幻寂 義天의 행장, 흥제암 환적당 승탑 건립 권선문, 청평사에서 지낸 小喪 제문 등을 쓴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서산 휴정의 제자인 편양 언기의 문손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활약한 승려들이다. 특히 信鏡은 17~18세 전반의 불상 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 그가 조성한 불상의 배경에는 스승 幻寂 義天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1660년~1661년 진여원 불사에 참여한 또다른 인물로는 學文을 들 수 있다. 그는 진여원 문수보살상을 조성할 때 화주를 맡았는데, 예천 용문사 불사에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朴世大가 쓴 「續龍門事蹟記」(1688년)에 의하면 學文은 1636년에는 예천 용문사 적묵당을, 1649년에는 응진전을 건립하였다.⁵⁶⁾ 學文과 함께 진여원 중창 불사에 참여한 信鏡은 1684년에 예천 용문사 아미타삼존상과 목각아미타설법상을 조성할 때 증명을 맡았다.⁵⁷⁾

幻寂 義天은 1627년(25세)에 소백산 진공암에서 3년간 수행했고, 1640년(38세)에는 용문산 북대에서 하안거를 보냈으며, 1686년(84세)에는 태백산 각화사 동암에서 1년을 주석하였다. 소백산과 태백산에서 수행한 幻寂 義天이 1660년에서 1661년에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할 때 학문이 화주를 맡은 것은, 용문사 일대에서 수행한 幻寂 義天과의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문이 용문사 적묵당과 응진당을 건립하였고, 幻寂 義天의 제자 信鏡이 용문사 금당을 창건하고 목각아미타설법상을 조성하는데 증명을 맡은 사실은, 이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실을 알려준다.

다음으로는 진여원을 건립한 승려 장인으로 大木, 彫刻僧, 佛畫僧이 주목된다. 대목은 法明, 信宝, 一訓, 克玄, 尙惠, 姜一万, 麗輝, 能淨, 連信, 仅和, 愛善, 性彦(性言) 등 12명이다. 대목 가운데 11명은 승려 장인이고, 속인으로는 姜一万이 유일하다.

조각승은 懷監(懷鑒), 洗淨, 神彦, 仅玄, 士吉 등 5명으로 수조각승은 회감이다. 회감은 조각승 인균이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삼존상 및 16나한상(1633년)을 조성할 때 5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했고, 그후 1661년에는 강진 무위사 명부전 존상(1661년)을 수조각승을 맡아 조성하였다.⁵⁸⁾ 조각승 회감은 수조각승으로 1661년에 진여원 문수보살상과 강진 무위사 명부전 존상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화승은 信兼(信謙) 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진여원 문수보살 36變化身을 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신겸은 17세기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보살사 영산회괘불도(1649년), 안심사 영산회괘불도(1653년), 비암사 영산회괘불도(1657년)를 수화승으로 조성하였다.⁵⁹⁾ 영산재나 수록재 등 야단법석에 사용되는 괘불을 그렸던 신겸은 1661년에 幻寂 義天이 주도한 진여원 문수보살 36변상을 그렸던 것이다.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慧湜이 주목된다. 그는 幻寂 義天이 1666년에 봉암사 十王殿 존상의 증명 법사를 맡을 당시에도 참여하였다.⁶⁰⁾ 幻寂 義天과 혜식

55) 허형욱,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佛教信行 내용과 『周易』卦象 표현」, 『불교미술사학』34, 불교미술사학회, 2022, pp.133~170.

56) 용문사성보박물관, 「龍門寺事蹟記」, 『龍門寺』, 2006, pp.21~23.

57) 용문사성보박물관, 「龍門寺金堂始創腹莊記」, 앞의 책, pp.116~117.

58) 손영문, 앞의 논문, 2022, pp.359~360.

59) 김창균, 「화승 信謙派 불화의 연구」, 『강좌미술사』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545~574; 이용윤, 「17세기 淸州 畫僧 信謙의 활동과 괘불도 조성」, 『미술사연구』36, 미술사연구회, 2019, pp.133~157.

60) 『楓溪集』卷下 「鳳岩寺十王殿上樑文」. “爰有義龍 厥號慧式 寬而有制 恢乎有容 既得丈夫身 盍行賢聖道 誓一朝與萬世之事 爲我佛遊四方之鄉 未及期年 一新芳宇 煙霞共奧 巖洞交清”. 동국대학교 불교학

의 인연은 봉암사 명부전 존상의 조성까지 이어졌다.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조성하는데 왕실과 관련된 인물은 상궁 邊妙蓮으로, 그녀는 진여원 중창과 문수보살상 조성에 대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상원사를 비롯한 오대산의 사찰들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의 시주가 지속되었던 곳으로,⁶¹⁾ 진여원 중창 불사에는 상궁 변묘련이 참여하였다. 그는 ‘佛像大施主 夫人 변시묘련’(眞如院三重創發願文 1, 1660년),⁶²⁾ ‘大施主 夫人過氏妙蓮’(文殊菩薩造成發願文, 1661년),⁶³⁾ ‘發願佛相大施主 尙宮夫人過氏妙蓮’(發願文, 1661년)⁶⁴⁾ 등으로 기록되었는데, ‘夫人’, ‘尙宮夫人’ 등을 통해 시주할 당시에는 出宮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인 시주자 가운데居士로 활동한 明俊과 明寂도 주목된다. 시주층으로 거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대부분 18세기부터이다.⁶⁵⁾ 眞如院三重創發願文 2(1660년)에는 대화주로 활동한 승려명 뒤에 ‘淸信士 明俊 明寂’을 기록해, 명준과 명적은 비승비속으로 승려들과 함께 진여원을 중창하는데 대화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속인 가운데 주목되는 또다른 인물로는 당시 형성에 거주하던 土主 具日 부부이다.

IV. 상원사 문수보살상 복장 기록과 불교 도상

1. 五臺五如來

1660~1661년 상원사 삼중창 때 진여원에는 어떤 존상을 모셨을까? 그 단서는 ‘五百佛名經第一佛号’로 시작하는 順治十八年發願文(1661년)에서 찾을 수 있다. 幻寂 義天은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내용을 발원문 앞에 싣고,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順治十八年辛丑七月日五臺山眞如院主人乾坤」一柱智鏡幻寂淸空子平生發願造成」文殊大菩薩五臺五如來及南巡童子善財」童子及畫并三十六變化形我願佛大悲力」所願如意一無防害現增福壽當生淨刹所願一成就之願」⁶⁶⁾

앞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幻寂 義天은 자신을 ‘五臺山 眞如院主人 乾坤一柱 智鏡幻寂淸空子’라고 칭한 후, 평생 발원해 文殊大菩薩·五臺五如來, 南巡童子·善財童子, 36變化形을 그려 조성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조성 당시의 것으로는 문수보살상과 南巡·善財童子像만 현존하고 있다.

먼저 문수대보살과 함께 五臺五如來를 조성한 내용을 주목해 보자. 여기서 五臺五如來는 문수보살의 머리에 표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五佛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보살들은 머리에 五佛冠을 쓰는데,⁶⁷⁾ 문수보살도 중생들에게 의지처이자 구호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五佛如來와 시방의 諸佛如來가 동시에 지혜광명으로 관정을 수여한 灌頂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은 正等覺佛로 장엄한 것으로 비로자나불을 머리에 받들어 모신

출원 <https://kabc.dongguk.edu/>.

61) 유근자,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불광출판사, 2022, pp.126~138; pp.525~577; pp.787~833.

62)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p.28, p.31.

63)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p.36, p.39.

64)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pp.44~45.

65) 유근자,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불광출판사, 2017, pp.272~291.

66) 월정사 정보박물관, 앞의 책, pp.40~43.

67) 『八大菩薩曼荼羅經』, “虛空藏菩薩左邊想普賢菩薩 戴五佛冠金色身 右手持劍 左手施願 半跏而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것이다.⁶⁸⁾ 밀교에서 五佛은 동방 아촉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불, 중앙 비로자나불(대일여래)이고, 이에 配對되는 五智는 大圓鏡智(동), 平等性智(남), 妙觀察智(서), 成所作智(북), 法界體性智(중앙)이다. 興福寺 전래 문수보살상 五髻에 표현된 五佛은 밀교의 五佛을 상징한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조성된 五佛五如來 도상은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밀교 五佛과 달리 오대산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머리칼은 위로 올려 묶어 寶髻를 만들고 그 위에 봉황, 구름, 꽃, 화염보주 등이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다. 머리카락의 일부가 두 귓불을 지나 어깨 위로 흘러내려 다른 보살상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상원사 문수전 목조동자문수좌상(1466년)과 보관을 쓴 목조문수보살상(1661년) 도상은 제작 시기와 도상이 다르다. 상원사 동자형 문수보살상은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에 “문수사리 五髻童子 형상을 그리되 몸은 황금색이고 갖가지 영락으로 장엄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金剛劍을 쥐고 왼손으로는 경전을 들고 있다. 月輪에 앉아 있는데 월륜의 네면에는 5자다라니를 돌려가면서 쓴다.”⁶⁹⁾는 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다.

상원사 목조동자문수좌상은 『금강정경유가문수사리보살법』에 의거한 五髻 대신 雙髻만 표현했고,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검과 경전 대신 설법인을 짓고 있어 도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문수보살은 대승경전에서는 諸佛의 지혜인 반야를 상징하며 보살 가운데 上首 보살로 인식되었고, 밀교의 문수보살은 진언의 글자수에 따라 一髻·五髻·六髻·八髻 등 상투의 수가 정해졌다.⁷⁰⁾ 이 가운데 五髻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五臺五如來’ 도상은 五髻에 五佛을 표현한 협시와 함께 조성된 일본 나라 興福寺에서 전래된 문수보살상(1273년)과 비교된다(그림 13). 興福寺에서 전래한 협시를 거느린 문수보살 도상은 중국 산서성 오대산을 『화엄경』 「諸菩薩住處品」에서 설한 문수보살의 주처 청량산이라고 인식한 문수신앙에서 기원한 것으로, 구성은 사자를 탄 文殊菩薩·善財童子·優填王·佛陀波利·最勝老人(大聖老人)으로 이루어져 있다.⁷¹⁾



그림13. 문수보살상과 권속, 카마쿠라시대 (1273년), 東京國立博物館소장. 출처: 東京國立博物館



그림14. <그림13>의 五髻文殊菩薩像과 五髻五如來

<그림13>의 사자를 탄 문수보살상은 오른손에 검을 들고 왼손으로는 반야경전이 얹힌 연꽃을 들고 있고, 五髻 위에는 五佛이 표현되었는데 중앙 상투에는 비로자나불이 배치되었다(그

68) 중암 선해 역주, 『문수진실명경역해』, 운주사, 2017, pp.391~392.

69) 『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卷 1. “於曼荼羅中 畫文殊師利五髻童子形狀 身如鬱金色 種種瓔珞莊嚴其身 右手把金剛劍 左手把梵夾 坐於月輪中 於月輪四面 周旋書五字陀羅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70) 中村 元·九野 建 監修, 『佛教美術事典』 「文殊菩薩」, 東京: 東京書籍, 2002, p.907.

71) 中村 元·九野 建 監修, 앞의 책, p.907.



그림15. 상원사 문수전
小阿彌陀佛像, 1750
년, ©유근자



그림16. 대성암 목조비로
자나불상, 1750년, ©최선
일



그림17.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상 중수
발원문 일부, 1908년,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
공

림14).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 五佛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밀교 오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조성된 五佛五如來의 도상은 어떠했을까?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불보살상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1661년에 보관을 쓴 보살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발원문에 기록된 ‘五臺五如來像’은 별도로 조성해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봉안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상원사 문수전 불감에 남아있는 1구의 小阿彌陀佛像(그림15)은 1661년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조성된 ‘五臺五如來’를 추정케 하는 자료로, 1750년에 다시 제작된 것이다. 五臺五如來로 추정되는 이 불상이 1750년에 다시 조성된 원인은 현재로서는 규명할 수 없다.

상원사 小阿彌陀佛像은 조각승 초흙이 1750년에 조성해 진여원에 봉안했다가 현재는 원주 대성암에 소장된 목조비로자나불상(도 16)⁷²⁾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은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주변에 봉안되었던 ‘五臺五如來’의 중앙불로 추정되는데, 두 존상의 유사한 양식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 존상 이외에 월정사 정보박물관에는 1750년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보살입상 1위가 남아있다.⁷³⁾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1661년에 조성된 五臺五如來의 도상은 밀교 오불이었는지, 『삼국유사』나 『오대산사적』에 기록된 오대산 신앙에 근거한 도상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2위의 불상과 1위의 보살좌상으로 판단한다면 『삼국유사』나 『오대산사적』에 기록된 五臺五如來일 가능성이 높다. 문수보살상과 함께 조성된 五臺五如來像은 비로자나불상(중대), 아미타불상(서대), 석가불상(북대), 관음보살상(동대), 지장보살상(남대)이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비로자나불상,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이 현존하고 있다.

상원사 불감의 소불상이 아미타불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상원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중수발원문(1908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08년에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할 때 상원사, 東臺, 월정사의 여러 존상이 함께 중수되었다. 이때 중수된 상 가운데 상원사 대웅전 아미타불(身佛上)과 身佛 座埵가 주목된다(그림17). 이것은 독립된 상이 아니라 다른 존상의 불신 위에 놓인 상과 대좌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목조문수보

72) 최선일, 「새로 발견된 오대산 진여원 조성 목조불상 연구 -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심으로-」,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월정사 정보박물관, 2023, pp.27~48.

73) 최선일, 위의 논문, p.39.

살좌상 주변에 배치된 ‘五臺五如來’ 가운데 小阿彌陀佛像과 대좌로 판단되며, 1750년에 대성암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1661년 조성 당시의 문수보살상과 五臺五如來像, 善財童子像과 南巡童子像의 배치는 <그림18>처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18. 상원사 문수전 文殊菩薩像·五臺五如來像, 善財·南巡童子像 배치 추정도

2. 南巡童子像과 善財童子像

본존 좌우로 동일 존상이 배치되는 이른 예로는 중국 운강석굴 미륵보살삼존상을 들 수 있다. 交脚坐의 미륵보살상 좌우로 반가사유 자세의 두 인물상이 쌍으로 배치된 예가 있으며, 관음보살상이 쌍으로 표현된 예는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한 도상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좌우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南巡童子和 善財童子의 배치는 일찍부터 쌍으로 협시를 표현한 것과 같은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관음보살상 좌우로 남순[선재]동자와 용왕을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서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南巡童子和 善財童子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상원사 문수전 불감 안에는 두 구의 동자상이 목조문수보살좌상과 함께 봉안되어 있는데, 바로 발원문에 기록된 두 동자상으로 여겨진다. 두 동자상은 연봉오리를 지물로 들고, 雙髻를 하였으며, 직립 자세를 취하고 있다(그림19). 이와 달리 상원사 목조동자문수좌상(1466년)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善財童子像은 민머리를 하고 상체에는 천의를 걸치고 있으며, 합장 한 채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다(그림20).



그림19. 상원사 南巡童子·善財童子像, 1661년,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공

그림20. 상원사 善財童子像, 1466년 추정, 월정사 정보박물관 제공

南巡·善財童子像(1661년)은 단순한 낮은 대좌 위에 서 있는 반면, 善財童子像(1466년 추정)은 높은 岩座 위에 서 있다. 몸을 앞으로 숙여 법문을 청하는 善財童자의 모습은 후자가 조화롭다. 南巡·善財童子像도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있지만 연봉오리를 든 지물 때문인지 請問 자세보다는 공양자에 가깝다. 南巡·善財童子像은 천의 안에 원피스형 上衣과 裙衣를 입고 그 위에 短裳을 걸치고 굵은 띠로 묶고 있어, 조선 전기에 조성된 善財童子像의 착의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善財童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거해 53선지식 가운데 28번째로 관음보살에게 법을 청하는 모습이다. 고려 수월관음도 속 善財童子는 천진무구한 동자의 모습과 약간 나이가 든 수행자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⁷⁴⁾ 관음보살에게 법을 청하는 善財童자와 달리 상원사 문수전에는 문수보살에게 청문하는 善財童자가 표현되어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 속에서 善財童자의 선지식은 문수·보현·비구·비구니·長者·童子·優婆夷·童女·仙人·外道 등 53명인데, 저마다 스스로 보살행을 갖추고 스스로 불법도 갖추고 있다.⁷⁵⁾

善財童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데 문수보살의 인도로 남쪽으로 순례해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후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佛道を 이루었다고 해 南巡童子라고도 불린다. 관음보살상 좌우로 南巡童자와 해상용왕이 배치된 것은 1655년에 조성된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관음보살상, 흥천사 관음전 관음보살상(그림21),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해 보리암 보광전 목조관음보살 불감(그림22) 등이다. 조선 후기 수월관음도의 좌우에도 善財童자와 용왕상이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도상이 유행했다.⁷⁶⁾

74) 고정은, 「아시아 미술에 나타난 善財童子 구법이야기」, 『수완나부미』2(1),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2010, pp.120~122.

75) 『新華嚴經論』卷1.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76) 유근자, 「흥천사의 조선 후기 불교 조각」, 『강좌미술사』4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pp.66~67.



그림21. 흥천사 관세음보살상(중앙)·선재동자상(좌)·해상용왕상(향우), 1701년



그림22. 남해 보리암 목조관음보살삼존불감, 17세기. 출처: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서울 흥천사 관음전 관음보살상 좌우로는 南巡童子像과 해상용왕상에 함께 모셔져 있는데, 이 두 상의 명칭에 관한 기록은 1890년에 그려진 <흥천사 아미타회상도>와 <흥천사 신중도>에서 찾을 수 있다. 1890년 10월에 대방의 여러 불화를 조성하고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願佛을 개금하고, 南巡童子像과 해상용왕상을 새로 채색을 한다⁷⁷⁾는 내용이 그것이다. 흥천사 南巡童子像은 머리칼을 묶은 쌍 상투 형식의 동자머리를 한 채,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南巡童子像과 해상용왕상을 좌우로 배치한 흥천사 관음보살상은 조선 후기 등장하는 새로운 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특히 두 손으로 정병을 들고 있는 南巡童子像은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다.⁷⁸⁾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좌우로 南巡童子和 善財童子在 쌍으로 배치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음보살상 좌우로 南巡童子和 해상용왕이 배치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에는 관음보살 좌우로 南巡童子和 해상용왕이 배치되는 것이 유행한 사실은 범해 선사(1820~1896)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⁷⁹⁾ 상원사 문수전처럼 善財童子在 쌍으로 표현된 예로는 13세기 화엄경 변상도(1200년)와 17세기에 조성된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을 들 수 있다.⁸⁰⁾ 고려 때 판각된 『화엄경』 「입법계품」(1200년) 변상도에는 마야 佛母를 찾아간 善財童子在 두 명 표현되어 있는데, 바닥에 꿇어 앉아 합장을 한 채 청문하는 두 동자의 머리 위에는 ‘善財童子’라는 방제가 표시되어 있다(그림23).⁸¹⁾

77) 흥천사 신중도 화기. “願佛一尊像 改金 南巡童子 海上龍王改彩”.

78) 유근자, 앞의 논문, pp.68~70.

79) 『梵海禪師文集』第一 「淸海觀音庵山神閣創建記」. “觀音菩薩屹立 南巡童子 海上龍王 左右侍立”.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80) 심주완, 앞의 논문, 2022, pp.257~258.

81) 善財童子在 두 명으로 표현된 것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있다(강소연, “向上一路의 善財童子 구도 여정”, 『현대불교』 2017.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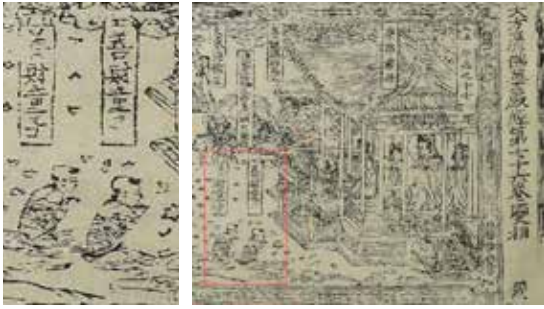


그림23.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76) 변상도 속 쌍으로 표현된 善財童子, 1200년, 출처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그림24. 목조아미타삼존불감, 17세기,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불교천태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에는 연화좌 좌우로 雙髻 동자상이 좌우로 2위가 배치되어 있다(그림24). 이 불감의 본존은 아미타불상이기 때문에 좌우 동자상의 성격은 불분명하지만 선악동자상일 가능성이 짙다. 조선 후기에는 지장시왕도를 비롯해 불화 속에 선악 동자가 쌍으로 표현된 예가 많기 때문이다.⁸²⁾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쌍으로 동자를 표현한 것이 유행하였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서 南巡童子和 善財童子를 표현한 것은 문수보살의 좌우 협시상으로 기획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문수동자가 5백 동자를 교화했지만 오직 善財童子만이 근원을 통달했다는 다음의 글이 참조가 된다.

『화엄경』에서 “文殊童자가 5백 동자를 교화하여 보리심을 내었지만, 한 사람 善財童子만이 본마음의 근원을 통달하고 1백 10城에 노닐며 보리의 온갖 행을 물었으며, 배운 바의 三昧門은 모두가 허깨비[幻化]와 같아서 실체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알라.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모두가 환영과 같으며, 똑바로 참 마음을 알기만 하면 저절로 진실이다.⁸³⁾

善財童子는 남쪽을 순례하면서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南巡童子라는 명칭을 얻었고 善財童子和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幻寂 義天은 문수보살의 좌우로 善財童子를 배치하면서 한 명은 南巡童子로, 또다른 한 명은 善財童子로 명명했던 것이다. 상원사 문수전에 있는 3위 동자상은 주존이 동자형인지 보살형인지에 따라 머리 모습이 다르게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목조 동자문수좌상과 함께 짝을 이루는 善財童子는 동자문수가 이미 雙髻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머리이고, 목조문수보살좌상 좌우에 배치된 善財·南巡童子像은 보살이 보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雙髻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문수보살의 36變身圖

문수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진여원에 날마다 이른 새벽에 36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난 이야기는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과 민지가 지은 『오대산사적』 「오대산의 성적 및 신라 정신태자와 효명태자의 전기」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에 실린

82) 안정수, 「19세기 지장보살도에 보이는 선악동자 도상 연구」, 『문물연구』20, 동아시아문물연구소, 2011, pp.113~148; 김정희, 「흥천사 극락보전 지장시왕도 연구-‘善惡童子’ 도상의 연원과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5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11~139.

83) 『宗鏡錄』 卷2. “如華嚴經中 文殊童子化五百童子 發菩提心 唯一人善財童子達本心原 遊一百一十城 問菩提萬行 所學三昧門 皆如幻化而無實體 故知從心所生 皆同幻化 但直了真心 自然真實”.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ttps://kabc.dongguk.edu/>.

문수보살이 진여원에 이르러 36가지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내용은 순서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표6). 부처의 다양한 모습, 보주와 보탑 등 불교의 상징물, 광명, 봉황 등 鳥類, 소가 사자를 낳는 등 다양한 신이한 모습으로 문수보살의 變身을 나타낸 것이다.

<표6>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속 문수보살의 36變化身

	삼국유사		오대산사적	
1	부처 얼굴	佛面形	부처 얼굴	佛面形
2	보주	寶珠形	부처 눈	佛眼形
3	부처 눈	佛眼形	부처 손	佛手形
4	부처 손	佛手形	부처 발	佛足形
5	보탑	寶塔形	1만 부처	萬佛形
6	많은 부처 머리	萬佛頭形	1만 등불이 빛나는 광채	萬燈光形
7	만등	萬燈形	보탑	寶塔形
8	금다리	金橋形	금고	金鼓形
9	쇠북	金鼓形	금종	金鍾形
10	금종	金鍾形	금륜	金輪形
11	신통한 모습	神通形	금 누각	金樓形
12	금루	金樓形	금 다리	金橋形
13	금륜	金輪形	금 동이	金甕形
14	금강저	金剛杵形	금 칼	金劔形
15	금용기	金甕形	금전(사찰)	金田形
16	금비녀	金鈿形	은전(사찰)	銀田形
17	오색광명	五色光明形	금강저	金杵形
18	오색원광	五色圓光形	보주	寶珠形
19	길상초	吉祥草形	오색 원광	五色圓光形
20	청련화	青蓮花形	오색 광명	五色光明形
21	금전(사찰)	金田形	길상초	吉祥草形
22	은전(사찰)	銀田形	청련화	青蓮花形
23	부처의 발	佛足形	우레가 솟구치는 모습	出雷形
24	번개	雷電形	집에서 오색 강채가 쏟아지는 모습	家中米湧出形
25	부처가 용출하는 모습	來湧出形	집에서 오색 광채가 쏟아지는 모습	家中五色光形
26	지신이 솟아나는 모습	地神湧出形	지신이 솟아오르는 모습	地神湧出形
27	금봉황	金鳳形	신통한 모습	神通形
28	금까마귀	金烏形	금봉황	金鳳形
29	말이 사자를 낳는 모습	馬產獅子形	황금 새	金鳥形
30	닭이 봉황을 낳는 모습	雞產鳳形	작은 새	雀鳥形
31	청룡	青龍形	푸른 뱀	青蛇形
32	흰 코끼리	白象形	흰 코끼리	白象形
33	까치	鵲鳥形	노는 멧돼지	遊猪形
34	소가 사자를 낳는 모습	牛產獅子形	말이 사자를 낳는 모습	馬產形
35	노는 멧돼지	遊猪形	소가 사자를 낳는 모습	牛產獅子形
36	푸른 뱀	青蛇形	닭이 봉황을 낳는 모습	雞產鳳形

문수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變化身을 보인다. 大幻網의 법으로 보리를 現證하고 제불의 변화신을 시방의 무량한 국토에 發出하여 유정의 이익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은 제불보살의 幻相과 같은 무량역의 변화신의 대환망을 보이는 顯示者이고, 예를 들면 갖가지 수레의 방편 도리로 유정의 饒益에 통달한 분이다.⁸⁴⁾

幻寂 義天은 진여원 창건과 관련된 문수보살의 36변화신을 삼중창하면서 재현하였다는 점

84) 중암 선혜 역주, 앞의 책, 2017, pp.491~493.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諸佛都會所로 진여원을 중창해 문수보살상을 조성하고 문수보살의 36變化身を 그려 봉안함으로써 개창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幻寂 義天이 상원사를 창건한 보천이 수행하던 신성굴[암]을 창건하고 그곳에서 10년 간 주석한 사실도 이러한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보천이 울진국 장천굴에 머물면서 ‘수구다라니’ 수행을 했던 것처럼 幻寂 義天에게서도 수구다라니 수행 흔적을 찾을 수 있다. 幻寂 義天은 보천이 수행한 신성굴을 1672년에 창건하였고, 1660~1661년 진여원을 중창하고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후 복장물로 ‘수구다라니’를 필사해 납입한 사실을 통해서이다(그림25). 이러한 그의 행적은 자신이 바로 상원사를 창건한 寶川의 뒤를 잇고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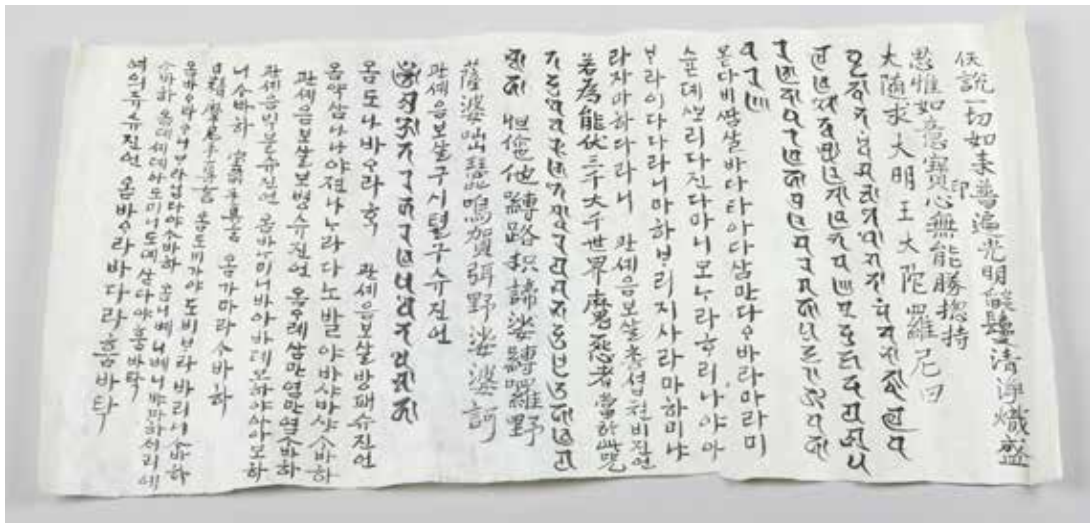


그림25. 수구다라니, 1660-1661년 추정, 월정사 성보박물관 제공

V. 맺음말

이상으로 1661년에 조성된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기록을 분석하고 幻寂 義天이 작성한 진여원 三重創에 관한 기록(1660년)과 목조문수보살좌상 조성발원문(1661년) 등 총 9점 가운데 중요한 7점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상원사 文殊菩薩像·五臺五如來像, 善財童子像·南巡童子像, 文殊菩薩 36變身圖가 모두 1661년에 조성된 사실과 幻寂 義天의 활동을 규명하였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유물은 복장 전적, 다라니, 후령통을 비롯해 여러 점의 발원문이 납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幻寂 義天은 1660년 5월부터 1661년 7월까지 장시간에 걸쳐 자신의 수행관을 살필 수 있는 것을 필사해 문수보살상의 복장으로 납입하였다.

幻寂 義天은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에서 오대산의 諸佛都會所로 창건한 진여원의 명칭을 사용해 삼중창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진여원의 명칭은 고려 말 기록에 등장한 이후 17세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幻寂 義天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幻寂 義天은 진여원을 삼중창하면서 창건 당시 오대산 신앙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하였다.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 기록의 五臺五如來는 조성 당시 문수보살좌상 주변에 배치된 것으로, 현재 상원사 문수전 불감 안 목조 小佛像 1존으로 남아 있다. 이 小佛像도 1750년에 다시 제작된 사실은 五臺五如來로 조성된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상의 복장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善財童子 및 南巡童子像이 문수보살상의 협시로 함께 봉안된 것은 이들 상이 1661년에 조성되었다는 복장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불교조각 가운데 지금까지 문수보살상의 좌우 협시로 존명이 확인된 유일한 예이다. 幻寂 義天은 여러 곳에 환적암을 건립하였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증명으로 참여하였으며, 선망 부모의 영가천도를 위해 상원사 문수보살상과 권속을 조성하였다.

이 연구는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복장 기록 분석을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1661년 목조문수보살좌상과 동시에 조성된 五臺五如來像, 善財童子 및 南巡童子像, 문수보살 36變身圖가 오대산 문수신앙 및 문수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南巡·善財童子的 도상 및 양식 특징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葛庵集』
『金剛頂經瑜伽文殊師利菩薩法』
『梵海禪師文集』
『泛虛亭集』
『佛說十二摩訶般若波羅蜜多經』
『三國遺事』
『三淵集』
『新華嚴經論』
『禮念彌陀道場懺法』
『五臺山事蹟』
『愚潭集』
『立齋遺稿』
『宗鏡錄』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
『八大菩薩曼荼羅經』
『楓溪集』

계미향, 「고려 의선(義旋)의 삼장법사 법호 고찰」, 『한국불교학』101, 한국불교학회, 2022.

고정은, 「아시아 미술에 나타난 善財童子 구법이야기」, 『수완나부미』2(1),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2010.

국립춘천박물관·월정사정보박물관, 『오대산 월정사』, 2023.

김도윤, 「여말선초 『예념미타도량참법』의 전래와 전개-『소미타참』의 유래와 관련하여-」, 『한국불교사연구』22, 한국불교사학회, 2022.

김기종, 「18세기 『염불보권문』의 편간과 불교사적 의미」, 『불교학연구』54, 한국불교학회, 2018.

김정희, 「흥천사 극락보전 지장시왕도 연구-‘善惡童子’ 도상의 연원과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5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김창균, 「화승 信謙派 불화의 연구」, 『강좌미술사』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옥추경(玉樞經)』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21,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2013.

손영문,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제작자와 도상적 연원」,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

심주완,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善財童子입상 연구」,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

안정수, 「19세기 지장보살도에 보이는 선악동자 도상 연구」, 『문물연구』20, 동아시아문물연구소, 2011.

어현경,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용문사정보박물관, 『龍門寺』, 2006.

유근자, 「흥천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강좌미술사』49(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7)

-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목조제석천상의 연구」, 『선문화연구』30, 한국선리연구원, 2021.
- 유근자,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 「施主秩」 분석」, 『미술자료』100, 국립중앙박물관, 2021.
- 유근자,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불광출판사, 2022.
- 유근자, 「오대산 상원사 제석천상의 도상과 봉안처」, 『불교문예연구』20, 불교문예연구소, 2022.
- 월정사 정보박물관, 『華嚴 연꽃가지를 들다』, 2014.
- 이경순, 「조선 후기 유람기록을 통해 본 오대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월정사 정보박물관, 2023.
- 이성운, 「중국불교의 참법(懺法)에 대한 소고(小考)」, 『불교문예연구』8(불교문예연구소, 2017)
- 이용운, 「17세기 淸州 畫僧 信謙의 활동과 괘불도 조성」, 『미술사연구』36, 미술사연구회, 2019.
- 이정재, 「『玉樞經』의 성립과 활용 및 사상사적 의의」, 『한국종교』 4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7.
- 전혜주, 「善財童子의 巡禮」, 『한국불교학』57, 한국불교학회, 2010.
- 중암 선해 역주, 『문수진실명경역해』, 운주사, 2017.
- 中村 元·九野 建 監修, 『佛教美術事典』, 東京: 東京書籍, 2002.
- 최선일, 「새로 발견된 오대산 진여원 조성 목조불상 연구 - 원주 대성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심으로-」, 『오대산 상원사 진여원과 조선시대 불교조각 학술세미나』, 월정사 정보박물관, 2023.
-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60, 열상고전연구회, 2017.
- 퇴우정념 감수, 권혁진·허남옥 지음, 『오대산의 인문학』, 산책, 2019.
- 한길중, 「조선후기 목각설법상 연구」, 『불교미술사학』29, 불교미술사학회, 2020.
- 허형옥,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佛教信行 내용과 『周易』 卦象 표현」, 『불교미술사학』34, 불교미술사학회, 2022.
- 강소연, “向上一路의 善財童子 구도 여정”, 『현대불교』 2017.4.20.

【Abstract】

Analysis of the Bokjang Records from Wooden Seated
Manjushri Statue(1661) of Sangwonsa Temple in Mount Odaesan

Yoo, Geun-Ja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nterpre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ajor seven Bokjang Records from the Wooden Seated Manjushri Bodhisattva statue created in 1661, which is currently enshrined at the Sangwonsa Temple in Mount Odaesan in Pyeongchang, Korea.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Third Reconstruction of Jinyeowon Temple(1660) and 'Balwonmun on Creation of the Manjushri Bodhisattva Statue'(1661) written by monk Hwanjeok Uicheon(幻寂 義天), statues of 'Manjushri Bodhisattva', 'Five-Buddhas in Five-Mountain peaks(五臺五如來)', 'Sudhana(善財童子)' and Namsoon(南巡童子, another name of Sudhana)', and painting of 'Manjushri Bodhisattva's 36 transformations(文殊菩薩 36變身圖)' were all created in 1661.

The small-sized five statues of 'Five-Buddhas in Five-Mountain peaks' were arranged as a set with the 'Manjushri Bodhisattva' statue at the time of creation(1661). Of the five Buddha statues, only two remain and are enshrined at the Munsujeon Hall of Sangwonsa Temple and Daeseongam Temple in Wonju,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Bokjang Records of the Wooden Vairocana Buddha statue of Daeseongam Temple, it is confirmed that even these two Buddha statues were newly create in 1750.

The fact that the statues of 'Sudhana and Namsoon' are enshrined with Manjushri Bodhisattva(1661) at Sanwonsa Temple is consistent with the record that these statues were created in 1661. This is the only example whose names have been confirmed so far from the Buddhist statues created in Joseon Dynasty that have been enshrined as left and right side co-coordinating statues with the Manjushri Bodhisattva.

The monk Hwanjeok Uicheon(幻寂 義天) built several new temples named Hwanjeok-am,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Buddhist sculptures as a donor, and created the 'Manjushri Bodhisattva' statue and other Buddhist statues of Sangwonsa Temple for the spiritual rebirth of his deceased parents.

In this study, the author confirmed that buddhist statues such as the 'Five-Buddhas in Five-Mountain peaks(五臺五如來)', the 'Sudhana(善財童子)' and Namsoon(南巡童子)' and the painting of the 'Manjushri Bodhisattva's 36 transformations(文殊菩薩 36變身圖)' of Sangwonsa Temple, which had been unclear until now, were all created in 1661 and closely related to worship of Manjushri in Odaesan. These Buddhist icons hav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study of the Iconology of Manjushri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s : Sangwonsa, Manjushri, Sudhana, Namsoon, Five-Buddhas in
Five-Mountain peaks, Hwanjeok Uicheon